



## 구스타브 크림퍼바인

지은이 헤르만 멘싱

übersetzt von Min-Jung Ramm



그 아이는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그는 멍청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뚱뚱합니다!  
곰처럼 뚱뚱합니다.  
그의 이름은 구스타브: 구스타브 크림퍼바인!



구스타브는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구스타브가 집을 나설때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커보입니다. 크고 날씬하게. 집들, 자동차들,  
사람들, 심지어 산책하는 개들까지도 모두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구스타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스타브는 꺼안을 수 있는 굵은 나무를 좋아  
하고, 넉넉한 크기의 커다란 자동차, 함께 뛰놀 수  
있는 뚱뚱한 개, 그리고 든든한 저축을 좋아  
합니다.

또한 커다란 비행기, 거대한 배, 두툼한 샌드위치,  
뚱뚱한 사람들, 그리고 두꺼운 이불도 좋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뚱뚱한 엄마, 뚱뚱한 아빠, 뚱뚱한  
앵무새, 뚱뚱한 세마리의 금붕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면 관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씬한 사람들이 그를 놀립니다!

“구스타브 뚱보!”, 그가 학교에 가면 그들이  
놀립니다.

“구스타브는 뚱뚱보 돼지!” 라고 부를 때도 있고,  
“구스타브는 “뚱뚱뚱보!” 가끔은 그렇게도  
부릅니다.

“구스타브는 새끼돼지” 때때로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구스타브는 뚱보”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뚱보! 뚱뚱보 돼지!” 모두 숨겨야 해!“



이런 놀림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에게조차도.  
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냥 무시해!"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시.... 뭐?"  
"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무-시-해!"  
"신경 쓰지마! 그냥 넘겨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어쩌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일지도 몰라.  
그날 오후 내내 구스타브는 파란색 문 앞 계단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뒷문을 통해 복도로 들어가 계단을 살금살금 오른 후 그의 방문을 잠갔습니다.

"구스타브!" 엄마가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스타브, 거기서 뭐 하고 있는거야?"  
"내려와, 저녁 먹자"

구스타브의 배에서는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 거렸습니다. 그러나 구스타브는 어떻게 할것인지를 알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올라와 문을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 있는거야?" 아빠가 물었습니다.  
"그르르르!" 구스타브가 으르렁 거렸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르르르!"

이상하게도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 오, 오!" 아빠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엄마가 말했습니다.



갑자기 문 앞에서 어마무시한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가서 무슨 일인지 보고 올게요 "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

그는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란색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마른 녀석!

비쩍 마른 녀석!

덩치 큰 녀석!

엄청 덩치 큰 녀석!

무시무시한 녀석!

역대 가장 무시무시한 개를



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구스타브가 개를 쳐다 보았습니다. 개도 구스타브를 쳐다 보았습니다.

“안녕“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멍!“ 개가 짖으며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구스타브가 집안으로 외쳤습니다.  
“그냥 개야“  
“어서와“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개는 구스타브를 지나쳐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나, 이 개는 어디서 왔어!“ 구스타브의 엄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개는 뒷발로 서서 앞발을 엄마의 어깨에 얹고 길게 늘어진 혀로 얼굴을 쓱 핥았습니다.



개의 눈은 계란처럼 컸습니다. 입은 2미터짜리 상어만큼 컸습니다.

귀는 수건만큼 컸습니다.

털은 헝클어져 있고, 꼬리는 쥐꼬리 처럼 가늘었습니다.



“멍!“ 개가 짖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모두를 쳐다 보았습니다.

구스타브의 아빠는 조심스럽게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개는 기쁨에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개를 빤히 쳐다 보았습니다.

구스타브는 하늘을 날듯이 행복했습니다.

이 개를 절대 내보내지 않을 거야

“너무 말랐구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분명 배가 고플거야“.

“멍!“ 개가 짖었습니다.



구스타브는 개에게 저녁을 주었습니다. 미트볼 스파게티 한접시를. 개가 한입에 꿀꺽 삼키고 나니 빈 접시만 남았습니다.

개는 구스타브에게 다가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연히, 개는 구스타브의 방에서 잤습니다. 구스타브는 그에게 저녁 내내 모든 이야기를 털어 놓았습니다. 구스타브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34

뽀뽀!

개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뽀뽀!” 부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뽀뽀 앉아!” 하면 자리에 앉았습니다.

“뽀뽀 이쁜짓!” 하면 이쁜짓을 행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구스타브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뽀뽀가 따라 갈려고 했습니다.

“안 돼! “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뽀뽀는 으르렁 거렸습니다.

“진짜 안 돼! “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뽀뽀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집에 있어! “ “나는 금방 올거야 “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뽀뽀의 목덜미 털이 곤두섰습니다. 결국 구스타브는 뽀뽀를 침대 기둥에 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스타브가 떠날때 뽀뽀는 울부짖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똑같았습니다.

“뚱보!” – “뚱뚱보 돼지!”

“모든 것을 숨겨야 해!”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구스타브는 다짐했던 대로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못 들은 척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 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한스 랑게가 뚱보라고 외치는 순간 어떤 그림자가 동이 뜨는 것처럼 진회색으로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한스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림자가 으르렁 거렸습니다.

한스 랑게는 창백해졌습니다.

얼굴이 길쭉해졌습니다.

그림자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한스 랑게는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구스타브는 그림자를 알아 보았습니다.

“뽀뽀 앉아!” 외쳤습니다.

한스 랑게가 앉았습니다.

“아니 너 말고!” 구스타브가 외쳤습니다.



한스 랑게는 학교운동장에 주저 앉았습니다.  
빠빠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구스타브가 다가갔습니다.  
“빠빠!” “넌 어떻게 여기에 온거야!”

빠빠는 기쁨에 온몸을 떨며 구스타브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한스 랑게는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구스타브, 너의 개야?” 물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건가?” “금방 구스타브라고  
부른거야?” 구스타브는 생각했습니



“이 개가 너의 개가 맞아?” 한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맞아! 그게.....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뭐야 똥똥보 돼지야?”  
한스의 말이 끝나치기도 전에 빠빠가 다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빠빠가 한스의 바지가랑이를 낚아채 힘껏  
당겼습니다.  
한스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착하지! 넌 착한 개야!” 한스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빠빠 하지마!”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빠빠는 교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스타브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는 모두가 빠빠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일까. 몇 살일까.  
사람도 잡아 먹는 걸까...  
“그래 사람도 잡아 먹어”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똥똥보 돼지가 사람 잡아 먹는 개를 키운단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거칠고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 모두가 얼어 붙었습니다.

“이것 봐! 빠빠는 내가 똥똥보 돼지라고 불리는  
것이 싫다잖아!”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이잖아!” “모두 말했습니다.

“웃긴 장난이라고? 나는 전혀 웃기지 않아!”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빠빠는 구스타브를 보고 반가워 했습니다.  
쥐꼬리 같은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습니다.  
큰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가자! 집으로 “ 구스타브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런 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끝